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시네마 2018.07.19
NO.8

VR영화
평행한 감각의 문으로 들어간다



INTERVIEW 〈백색밀실〉 폴 라시드 감독, 배우 쇼나 맥도날드

INTERVIEW 〈오컬트 불세비즘〉 다카하시 히로시 감독

다카하시 히로시 감독

황토방에서 빚어

더욱 깊은 맛과 그윽한 향이 가득한 부드러운 그 맛!



생 소성주는

인천탁주의 대표 막걸리입니다.

- 상품명: 소성주
- 원재료: 백미90%, 전분당 10%
- 규 격: 알콜분 6도
- 용 격: 750ml
-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 이하에서 10일까지



수업으로 희망이 시작되는 곳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진료예약(콜센터): 1899-5700

E V E N T

10:00 ~ 20:00
포스터 피규어 전시
부천시청 2층

10:00 ~ 20:00
인디라운지
그리고 인디스토리 20주년 전시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

10:00 ~ 20:00
전시로 만나는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

10:00 ~ 20:00
BIFAN VR 빌리지
부천시청 중앙공원

17:00
마스터클래스
'J호러의 크리에이터,
타카하시 히로시'
CGV소풍 2관

17:30
메가토크 '내 영화 꽃길 내가 깎다,
불한당과 불한당'원들'
부천시청 어울마당

표지 감독 다카하시 히로시
사진 오계옥

S T A F F

발행인 배경록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이주현 김현수 김소미
객원기자 김정현
사진 오계옥
사진객원 박종덕
디자인 김윤희 권지혜
제작총괄 심은하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BIFAN board



남은 티켓 나눔

관객들이 부천시청 앞에 위치한 티켓 나눔터에 남은 티켓을 붙이고 있다. 모든 현장 티켓부스 앞에는 발견했지만 미처 취소하지 못한 티켓을 다른 관객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티켓 나눔터가 준비되어 있다. 공식사이트 (www.bifan.kr)에도 온라인 티켓 나눔터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새로운 세대의 판타스틱 영화를 키운다

환상영화학교 오픈 피칭과 수료식이 18일(화) 오전 10시 판타스틱큐브에서 열렸다. 환상영화학교는 2008년부터 시작해 매년 신진 영화인을 양성하고 있는 판타스틱 영화 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19개국 28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오픈 피칭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심사위원 장산령, 존 하이스, 알렉산더 오 필립 멘토 앞에서 그동안 그룹 단위로 준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명왕성에서 온 소년〉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7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됐으며 각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조언도 이어졌다. 오픈 피칭이 끝난 뒤에는 수료식이 진행됐다. 수료증을 전달한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학생 여러분이 각자의 영화로 다시 부천에 오기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격려를 보냈다.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환상영화학교는 내년에도 다시 새로운 영화인을 맞이할 계획이다.

김정현 객원기자

한일 독립영화 감독들의 만남



메가토크 '한일 저예산 장르영화 생존기'가 18일(수) 오후 5시 판타스틱큐브에서 열렸다. 〈성스러운 것〉으로 BIFAN을 찾은 이와키리 이소라 감독, 〈잠자는 미녀의 한계〉의 니노미

야 켄 감독, 〈비치온더비치〉의 정가영 감독, 〈튼튼이의 모험〉의 고봉수 감독이 참여해 영화 제작 경험을 나눴다. 이와키리 감독은 “감독이 100% 투자하는 자주영화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담을 수 있어 재밌지만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영화가 실패했을 때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독립·저예산 영화 만들기의 재미와 어려움을 전했다.

라틴 영화의 저력을 공유하다



떠오르는 라틴 아메리카 영화의 활력을 논하는 메가토크 '부흥! 라틴 장르 영화!'가 18일(수) CGV 부천 6관에서 열렸다. 〈호랑이는 겁이 없지〉의 이사 로페즈, 〈공포의 침입자〉

의 데미안 루냐, 〈거주자〉의 기예르모 아모에도 감독 등 5인이 참석한 가운데, 다국적 영화 제작의 가능성에서 BIFAN 관객과의 추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나눴다. 〈카니발 클럽〉의 구토 파렌테 감독은 “호러, 판타지 장르를 통해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감독이 많다”며 라틴 아메리카 영화의 최신 경향을 진단했다.

VR 보고 같게요~



2: 혼돈의 돌〉 등 일부 작품은 부천 중앙공원에 마련된 BIFAN VR VILLAGE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모든 VR 콘텐츠는 선착순 예약을 통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32편의 상영작 정보는 영화제 사이트(www.bif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 영화계의 교류를 위해

이현기
산업프로그램팀 '메이드 인 아시아' 기획 및 운영

산업프로그램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

아시아 주류 영화산업의 네트워크 발전을 도모하는 '메이드 인 아시아'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베스트 오브 아시아' 특별전에 선정작의 제작자들을 초청하고 포럼을 기획하는 일을 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상영을 위해 DCP를 수급할 때, 〈마신자 2 - 빨간 옷 소녀의 비밀〉의 세일즈 담당 에릭 추가 외장하드와 함께 맛있는 차를 보내주셨다. 뜻밖의 선물에 감동받았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영화 수입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영화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 영화제에도 참여했다.

글 김정현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사랑하는데 왜 아이들이라 못 부르지?”

→ 〈오늘도 위워〉GV에서 배우 선우선, 반려동물을 공식석상에서 '아이들'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카메라를 든 사람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찍었다.”

→ 〈성스러운 것〉GV에서 감독 이와키리 이소라. 일본 내 미투(#Me_too) 사건을 지켜보면서 카메라의 폭력성을 깨닫고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다며,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관객들이 찾아준다.”

→ '부흥! 라틴 장르 영화' 메가토크에서 〈호랑이는 겁이 없지〉감독 이사 로페즈, 할리우드가 아닌 라틴영화만의 미학을 찾으려 한다면,

Interview

극한의 밀실 체험

〈백색밀실〉 폴 라시드 감독, 배우 쇼나 맥도날드

호러 영화 〈디센트〉(2005)로 명성을 얻은 배우 쇼나 맥도날드가 영국의 신예 감독 폴 라시드의 〈백색밀실〉을 통해 SF 장르의 주연에 도전했다. 백색밀실에 갇힌 한 여성이 밖에서 들려오는 온갖 질문과 가혹한 고문에 시달리는 제한적 상황의 설정. 〈백색밀실〉에 관해 폴 라시드 감독은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진실을 다각도로 탐구해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폴 라시드 감독, 배우 쇼나 맥도날드(왼쪽부터).

근미래의 고립된 영국을 배경으로 내전 상황을 그리는 영화라는 점에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우화로도 읽힌다.

폴 라시드 실제로 브렉시트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두달이 지난 시점에 시나리오를 썼다. 내가 생각한 건 가장 최악의 경우였다. 가능한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 상상하며 내전 상황을 그렸다.

시나리오를 읽고 특별히 어떤 지점에 매력을 느꼈나.

쇼나 맥도날드 SF영화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무엇보다 캐릭터에게 설득됐다. 할리우드 장르물에서 여성은 대체로 극에 필요한 기능적 장치인 경우가 많다. 좋은 캐릭터는 젠더를 바꾸었을 때도 아무런 디테일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백색밀실〉의 경우가 그랬다.

〈백색밀실〉로 SF 장르에 도전하기 전에도 꾸준히 장르물에 캐스팅 되어 왔다. 스스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쇼나 맥도날드 내 장점은 신체적으로는 강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연약할 수 있다는 점 같다. 캐스팅 담당자로서는 호러 장르에서만큼은 더 이상 검증이 필요 없다는 간편한 이유도 있겠지. (웃음)

온 방안이 하얗게 처리된 백색밀실이라는 미장센을 떠올리게 된 계기는.

폴 라시드 간결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는 몇몇 SF 영화의 미니멀리즘적 미술에 큰 영향을 받았다. 끔찍한 고문이 일어나는 공간인 동시에 영원성이 느껴지는, 두 가지 대조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었다.

밀실에서 극한의 날씨와 전기, 음파 고문 등 다양한 고통을 겪는다. 신체적으로 극단까지 몰리는 상황을 어떻게 준비했나.

쇼나 맥도날드 배우는 겉으로 판단되는 직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배우가 실제로 극에 100% 이입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연기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위험한 컨셉의 촬영을 할 때는 배우가 현장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고어 영화에서 배우들이 어색하게 군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백색밀실〉은 모든 것이 그 반대였고, 덕분에 나 자신을 충분히 던질 수 있었다.

영화 마지막까지 클로즈업 숏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강렬함을 극대화했다.

폴 라시드 〈폰부스〉(2002), 〈베리드〉(2010) 같은 영화들이 도움이 됐다. 배우들의 얼굴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모든 디테일을 살필 수 있는 영화만의 장점을 활용하고 싶었다.

쇼나 맥도날드 배우는 클로즈업 숏을 찍으면서 '레스 이즈 모어'(less is more)의 미학을 실감하게 된다. 내면에선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밖으로는 아주 작은 눈물 한 방울을 떨어트리는 것. 그게 〈백색밀실〉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좋은 연기의 조건이다.

글 김소미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Interview

"극장에서 심령현상을 경험하도록"

〈오컬트 불세비즘〉
다카하시 히로시 감독

〈여우령〉(1996), 〈링〉(1998) 시리즈의 각본을 쓰며 세기말 일본 공포영화의 전성기를 책임졌던 작가 타카하시 히로시가 BIFAN을 두 번째 방문했다. 이번엔 심사위원 자격으로 방문했지만 자신만의 확고한 공포철학을 전파하는 세 번째 장편 연출작 〈오컬트 불세비즘〉을 특별상영하고 마스터클래스도 연다. 그가 생각하는 공포에 관해 물었다.



두 번째 장편 연출작 〈공포〉(2010)로 15회 BIFAN 'J-호러 무서운 이야기 최종장' 특별전에 초청된 이후 부천은 두 번째 초청이다.

신작 〈오컬트 불세비즘〉의 형식이 워낙 낯선 형태라서 한국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거의 배우들의 대사로만 이뤄진 영화다. 사람들이 한밤중에 모여 괴담을 이야기하는 ‘하쿠모노가타리’라는 이야기 문화에서 착안해서 그와 유사한 형태를 영화에 담으려고 했다.

〈오컬트 불세비즘〉의 원제인 “霊のポリシエヴィキ(영적인 불세비키)”라는 제목이 독특하다. 영화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1990년대부터 갖고 있었던 기획이다. 그 당시 옴진리교 사건이 발생했고 어느 오컬트 연구가가 “영적인 불세비키”라는 말을 썼는데 그 사건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원래는 지금처럼 연극무대에서 이야기하듯 진행되는 영화가 아니라 개별 에피소드를 영화화려고 했다. 역시 제작비 때문에 일본에서도 무산됐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예산 독립영화로 만들게 됐다. 전체 예산 규모가 150만 엔(한화 약 1500만원)이었다. 극단적인 저예산이라고 해야 할까. (웃음)

한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사건이 벌어지는, 연극적인 요소가 강한 영화다.

일본에서 개봉했을 때 홍보문구가 “극장에서 경험하는 심령현상 같은 영화”였다. 체험하는 영화로서의 본질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연극적인 상상력을 담아보고자 했다. 물론 연극을 영화화하는 것과는 달라야 했다. 스크린을 체험하는 영화처럼 구상했다. 가 맞는 표현이겠다.

유아 납치살해범이 처형될 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 교도관, 어릴 때 유괴 경험이 있었으나 기억이 사라져버린 ‘카미카쿠시’를 경험한 여성 유키코, 사람을 죽여본 경험을 지닌 안도 등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실험하듯 들려주는 에피소드는 어떻게 구상했나.

내가 꿈에서 어렵듯이 봤던 장면, 그리고 뉴스에서 보도되는 실화 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 평소 무섭다고 생각했던 ‘의사 코난 도일의 가짜 요정 사진’ 같은 역사적으로 화제가 된 오컬트 이야기도 소재로 삼았다.

“스탈린의 공포 정치는 불세비즘의 궁극적인 형태다.”라는 대사도 나오듯 집단으로 모여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공포 영화 소재와 정치를 연결시킨 이유는 뭔가.

당시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됐을 때, 실제로 영적인 혁명을 이뤄야 한다는 움직임도 보이기도 했다. 그것이 어떻게 인간을 해치는지 궁금했다. 스탈린이 자행했던 학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글 김현수 · 사진 오계욱

Preview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3 CGV부천 3관 BU4 CGV부천 4관 BU5 CGV부천 5관 BU6 CGV부천 6관 BU7 CGV부천 7관 BU8 CGV부천 8관
S02 CGV소풍 2관 S03 CGV소풍 3관 S04 CGV소풍 4관 S05 CGV소풍 5관 S06 CGV소풍 6관 MM 한국만화박물관 SS 송내술안이트홀



슬럼가 대습격

Buy Bust

에릭 마티 | 필리핀 | 2017년 | 128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19 S03 19:30



마닐라의 한 특수부대가 마약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슬럼가에 진입한다. 하지만 곧 그들은 이 작전이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출구를 알 수 없는 슬럼가에서 부대원들은 자신들을 뒤쫓는 조직원들, 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슬럼가 주민들과 싸우며 골목을 헤매기 시작한다. 영화는 특수부대원이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

주면서 주인공을 비롯한 부대원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바로 슬럼가로 이들을 진입시켜 영화의 상영시간 대부분을 액션 장면으로 채운다.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일대 다수의 액션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동남아권의 다른 액션영화 <레이드>(2011)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슬럼가 대습격>은 슬럼가라는 특수한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공간들이 좁은 범위 안에 얽혀 있는 슬럼가는 충격전과 추격전을 비롯한 다양한 액션을 펼칠 공간이 된다. 영화의 후반부, 주인공이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가면서 시작되는 롱테이크 액션 신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영화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상적인 장면이다. 더 나아가 영화는 마약 조직과 경찰 사이에서 휘둘리고 희생당하는 슬럼가 거주민들을 비춤으로써 필리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는데 이를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면서 강렬한 결말을 만들어낸다. 주인공을 비롯한 여성 인물들이 특수부대원으로서 엄청난 강도의 액션을 소화한다는 점 역시 인상적이다. <온 더 잡>(2013)과 함께 부천을 찾았던 필리핀 감독 에릭 마티의 신작. 김정현 객원기자

살인멧돼지 Boar

크리스 선 | 호주 | 2018년 | 96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19 S02 13:00



호주의 한 마을에 거대한 변종 멧돼지가 나타나 마을 곳곳에서 인간들을 공격해 잡아먹기 시작한다. 친척인 버니를 만나 휴가를 즐기러 온 가족들도 이 거대 멧돼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된다. <살인멧돼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영화가 만들어낸 거대 멧돼지의 형상이다. CG 사용을 자제하고 아날로그 특수효과를 활용해 만들어낸 거대 멧돼지는 기괴하면서도 생생한 모습으로 등장해 관객에게 공포를 선사한다. 영화는 사이사이에 유머러스한 장면들을 배치하며 완급을 조절하고, 멧돼지에 맞서 대결을 펼치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강렬한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거대한 체구를 가진 배우 네이선 존스가 연기하는 캐릭터 버니가 멧돼지와 홀로 맞서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 조 단테 감독의 <하울링>(1981)을 비롯해 1970, 80년대에 많이 등장했던 괴수영화를 연상시키는 흥미진진한 작품. 김정현 객원기자

라이브하드 Live Hard

황욱 | 한국 | 2018년 | 100분 |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7.19 S04 13:00



밴드 머저리클럽의 드러머 섭과 베이시스트 철은 무대에 서고 싶다. 하지만 밴드의 리더이자 실력자인 임재는 매번 라이브클럽 오디션에 나타나지 않는다. 블루스 음악을 하고 싶은 가난한 흑인 뮤지션 덕규 역시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 덕규가 아무리 재즈 기타를 끝내주게 쳐도 결국 돈이 되는 건 재즈 연주가 아닌 랩 피쳐링이다. <라이브하드>는 독특한 음악영화다. 흑백의 화면은 인물들이 서 있는 공간을 종종 무국적의 공간으로 만들고, 오디션을 보러 라이브클럽을 찾은 뮤지션들은 때로 누가 먼저 춤을 빼들지 눈치 보는 서부극의 주인공처럼 묘사된다.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만 곧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영화를 휘감는다. 침묵과 긴장의 정조를 뚫고 음악이 연주될 땐 그만 영화에 홀리고 만다. 이주현

대관람차 The Goose Goes South

백재호, 이희섭 | 한국 | 2018년 | 110분 |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7.19 BU7 19:30



일본 오사카로 출장을 왔던 우주(강두)는 술에 취해 길을 헤매다 선박사고로 실종된 선배 대정(지대한)과 닮은 사람을 만난다. 어렵뚫한 기억을 더듬으며 그를 쫓던 우주는 신비한 술집을 발견하고 이괄리웃 들어가서는 밤새 술을 마신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편도 놓친 그는 현실이 아니라 선배 대정이 추구했던 음악하는 삶,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넘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음악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보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허황되지 않고 알맞은 크기로 전달하려는 영화다. 그룹 '더 자두'의 멤버 강두가 우주 역을 맡아 터질 듯한 감정을 노래로 전달한다. 루시드 폴과 일본의 인디 뮤지션 스노우의 잔잔한 음악이 감동을 넘치지 않게 재단한다. <그들이 죽었다>(2014)의 백재호 감독과 이희섭 촬영 감독이 공동 연출했다. 김현수

보지 말고 감각하라!

BIFAN이 주목하는 가장 최신의 VR 영화들

글 김현수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BIFAN은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뉴미디어 VR의 눈부신 발전에 주목하여 B.I.G 프로그램 내에 별도 섹션을 마련해 전세계 VR 콘텐츠를 소개해왔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VR 빌리지'를 신설해 국내외 주목할만한 36편의 작품 상영을 이어가고 있다. (22일까지 부천 중앙공원 내 'VR 빌리지' 운영) 선댄스, 트라이베카 국제영화제, SXSW 페스티벌 등 전세계 영화제에서 소개된 가장 최신의 문제작들이 대거 초청됐다.

VR 영화의 현재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작품들

올해 선댄스국제영화제 뉴프론티어 섹션에서 소개되어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배틀스카>(마르틴 알레, 니코 카사베기아 감독)는 기존의 영화 문법이 아닌 시네마틱 VR의 문법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작품. 16살 소녀 루페가 교도소에서 친구 데비를 알게 되어 '펑크' 음악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인데, 관객은 그녀가 일기장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고 펑크 밴드를 하게 되는 이야기를 말 그대로 '보게' 된다.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의 자유로운 교차 속에서 장면과 배경, 소품, 대사 등이 사방에 펼쳐진다. 기존 영화가 가진 고정된 틀, 즉 보는 관객의 시점과 사각 프레임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으로는 앙헬 마

누엘 소토 감독의 <디너 파티>를 꼽을 수 있다. 1960년대 UFO에 납치됐다 풀려난 것으로 알려진 베티와 바니 힐 커플의 이야기를 체험하게 만들었다. 영화는 이들이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UFO에 사로잡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과정 '속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카메라의 이동에 몸을 맡기면 색다른 실재감과 몰입감을 느끼게 된다. 호러 영화의 열기를 VR에서도 기대한다면 다크코너 특별전에 소개된 알렉산드레 아자 감독의 <캠프파이어 크리스마스: 미드나잇 마치>, <캠프파이어 크리스마스: 더 스컬 오브 샘> 연작 시리즈를 주목하자. 오컬트와 퓨처라이트하우스에서 제작한 단편 영화로 VR과 호러 문법의 결합을 흥미롭게 고민한 작품이다. <캠프파이어 크리스마스: 미드나잇 마치>는 늑대인간의 무자비한 학살극을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캠프파이어 크리스마스: 더 스컬 오브 샘>은 산속에서 만난 연쇄살인마의 극악무도한 살인 행각을 직접 겪게 되는 충격적인 영화들이다.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크루거를 연기했던 배우 로버트 잉글런드가 연쇄



<디너 파티>



<프롬 더 어스>

살인마로 등장해 관객을 말 그대로 죽여준다. 무서운 영상이 한 편 더 있다. 텍스터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살려주세요>는 네이 버 웹툰과 함께 호러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한 <DEY 호러채널> 중 한 편으로, 일종의 VR TO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평면 모니터에서 스크롤을 내려야 볼 수 있는 웹툰 형태를 360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VR 영상이다. 텍스터는 또 장형운 감독의 <프롬 더 어스>도 선보였는데 애니메이션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2013)를 연출했던 장형운 감독의 상상력이 가미된 VR 애니메이션 단편이다. 우주 탐사를 떠난 아버지와 그를 기다리는 지구의 딸이 서로 교감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주 한복판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모습, 미지의 세계에 당도하는 모습 등이 눈 앞에 펼쳐지는데 시점의 전환과 내러티브 상의 반전을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VR 영화의 스토리텔링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를 보여주는 작품.

VR과 다큐멘터리의 흥미로운 결합을 꾀한 국내외 유익미한 시도도 있다. 덴마크의 피터 반 허위스테 필름에서 제작한 <라스트 체어> 시리즈는 두 노인 프레드와 에그버트의 일상을 체험하게 해주는 작품. 평범하지만 전혀 다른 두 노인의 일상을 마치 의자에 앉아 옆에서 지켜보듯 바라보는 것은 과연 관



VR빌리지 전경

객에게 어떤 의미일지를 되문게 만드는 작품이다. 스포일러를 살짝 공개하자면, 그들의 마지막도 관객이 함께 하게 된다. 국내 제작사 IOFX와 박규택 감독이 협업한 <바람>은 파라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동계훈련 현장을 VR 영상에 담았다. 경기 도구인 '픽'의 시점에서 빙상장 한복판에서 경기를 체험하게 하는 작품으로 다큐멘터리와 VR의 접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는 작품이다.

떠오르는 VR 제작사들

올해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베스티지> 역시 VR 다큐멘터리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다. 볼류메트릭 비디오 캡처라는, 카메라 촬영이 아니라 3D 캡처를 통해 인물의 움직임을 독특한 시각 이미지로 표현한다. 마치 눈으로 전자기장을 보는 듯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옛사랑을 기억하는 인물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눈 앞에 보이는 형체가 보는 관객 위를 뒤덮기도 하는데, 가상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사실상 그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작품을 공동 제작한 스튜디오 NSC 크리에이티브, RYOT, 칼레이도스코프 등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VR 제작사다. RYOT는 <디너 파티>를 제작했고, 칼레이도스코프사는 <배틀스카> 제작에도 참여했다.

국내 VR 영화 제작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의 KAFA+ NEXTD 교육 과정에서는 총 6편의 작품을 출품했다. 김경갑 감독의 <기억의 재구성>은 죽은 사람의 뇌에 접속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과학수사관의 체험을 다룬 작품으로 360도 실사 촬영을 통해 사각의 프레임에 벗어나려는 여러 시도를 보여준다. 사각의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가장 이상적 시도는 배경현 감독의 <의릉>이다. 꿈을 꾸는 듯한 현실 속에서 주인공은 모두가 자신을 다른 인물로 오해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실은 카메라 뒤편에 나와 흡사한 다른 인물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설정이다. 360도 촬영을 통해 관객이 사방을 모두 주시해야 한다는 VR의 기능적인 측면을 이야기에 접목시킨다.

FEATURE

J-Horror - The Godfather Returns

Few countries craft genre films quite like Japan. The variety of concepts, ideas, and themes that emerge annually from the Land of the Rising Sun's film industry never fail to amaze. At BIFAN 2018 a mightily impressive 21 Japanese feature films are screening - reality-bending romance *The Limit of Sleeping Beauty* and ghostly comedy *The Sacrament* vie for prizes in Bucheon Choice; World Fantastic Red features seven films while Blue hosts nine; Family Zone contains animated tale *Maquia: When the Promised Flower Blooms*, autobiographical pornography film *Dynamite Graffiti* appears in the Forbidden Zone; and a J-horror mastermind TAKAHASHI Hiroshi's latest film *Occult Bolshevism* will receive a special screening.

Today at 5pm after a special screening of new J-horror *Occult Bolshevism* at CGV Sopoong 2, a Master Class event will take place entitled TAKAHASHI Hiroshi, the Godfather of J-horror. The celebrated filmmaker is widely credited for helping to kickstart the surge of high quality Japanese horror films in the late 90s and early 2000s alongside director NAKATA Hideo, performing writing duties for *Don't Look Up* (1996), and arguably the most famous J-horror of all *Ringu* (1998), as well as sequels *Ringu 2* (1999) and prequel *Ring 0* (2000). TAKAHASHI also wrote critically acclaimed Yakuza tale *Serpent's Path* (1998), and off-the-wall murder thriller *Crazy Lips* (2000). More recently he was a writer for science-fiction TV drama-turned-feature film *Foreboding* (2018).

Occult Bolshevism is a low budget J-horror that follows seven men and women who take part in a group discussion in a factory. Their aim is a forbidden psychic experiment in order



Occult Bolshevism

to bring about a form of spiritual awakening, and as each member reveals their secret terrors, traumas and experiences, supernatural incidents begin to occur around them.

Through the TAKAHASHI Hiroshi, the Godfather of J-horror - Master Class, the inspirational writer/director will discuss his latest film, his extraordinary career, and the challenges of being an independent filmmaker in contemporary Japan. J-horror and genre enthusiasts will also be able to ask questions during the Q&A session.

Japanese Films - World Fantastic Red

More thrilling Japanese tales can be found within the World Fantastic Red program. *The Blood of Wolves* (SHIRAISHI Kazuya) is a 1980s set gangster film, as detectives and the Yakuza clash. The Japanese pornography industry is examined in *The Lowlife* (ZEZE Takahisa). Animated film *Mutafukaz* (NISHIMI Shojiro&Guillaume RENARD) follows the inhabitants of Dark Meat City. *One Cut of the Dead* (UEDA Shinichiro) is a zombie comedy-thriller. *Sunny* (SHIRAISHI Kazuya) depicts the kidnapping of a young woman, *Yaru Onna -She's a Killer-* (MIYANO Keiji) follows Aiko as she seeks revenge against the Yakuza, and *Yurigokoro* (KUMAZAWA Naoto) is a murder mystery.

Simon McEnteggart

REVIEW

Tigers Are Not Afraid

Issa LÓPEZ | Mexico | 2017 | 83min | Bucheon Choice: Features

Harsh reality and dark fantasy blend beautifully in director Issa LÓPEZ's phenomenal *Tigers Are Not Afraid*, a poignant examination of the disastrous drug war in Mexico City and how children cope in the face of such violence. A macabre fable with a compelling emotional core alongside striking visuals, *Tigers Are Not Afraid* is an absolute must-see.

The film depicts the fallout of Mexico's war on drug crime, which has resulted in shocking gang violence and daily executions. Amongst the carnage are the forgotten victims, children who have lost their parents and fight to survive on the streets. When Estella joins an orphan gang led by Shine, they find themselves on the run from murderous gangsters - and from the frightening ghosts that now haunt the city.

Writer/director Issa LÓPEZ is an exceptional talent. Seamlessly integrating gritty realism with horrific dark fantasy in depicting a story of traumatized youth, LÓPEZ has crafted a film that works on so many levels. It is simultaneously a scathing social critique, a coming-of-age tale, a fairytale adventure, and more besides, resulting in a film that consistently engages the heart and mind. As such, *Tigers cannot help but invite comparison with classics Pan's Labyrinth and City of God*, but the film has a style that is uniquely its own and is utterly absorbing from start to finish.

Tigers Are Not Afraid is not only a great genre film but also a compelling piece of cinema, and is highly recommended viewing.

Simon McEnteggart

INTERVIEW



Abdul ZAINIDI and Jungwoo LEE

Brunei filmmaker Abdul ZAINIDI and Korean producer Jungwoo LEE have joined forces to collaborate on fairytale drama *Worm and the Widow*, selected to take part in B.I.G's IT Project market at BIFAN 2018. ZAINIDI is known for his *Vanishing Children* short films that offer a glimpse at Bruneian life, while LEE works at Busan based Skyst Inc. focusing on co-production projects. The duo won the coveted Bucheon Award and 15 million KRW for their project.

Can you introduce your project?

Worm and Widow is like *Rapunzel* meets *Misery*. The story is loosely based on a local fairy tale from Brunei about a boy, Ulot, and a widow, known as a witch. One day, he notices a witch with so-called bizarre magic powers. It's not until he gets into her house that he realizes the mystery behind her goes deeper than he can possibly imagine.

Can you describe your experience of being part of the IT Project?

It has been excellent so far. We are very glad to have an opportunity to meet so many influential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We applied for the IT project to meet not only co-production partners but also investors, distributors and sales agencies as well.

What are you intending to achieve through this project?

We want this story to be considered as a social drama. There will be hidden messages about society, but generally the goal is to make this film intriguing and accessible to the Bruneian public and also to strongly appeal to international markets beyond Brunei.

Simon McEnteggart

Screening 07.19.THU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701 14:00 바스티즈 The Bastard and the Beautiful World 105min / ㉔				702 17:30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 메가토크 The Merciless + Mega Talk 120min+Talk / ㉔				
FA City Hall, Fantastic Cube(1F)					703 14:00 리튼 Written 87min / ㉔			704 17:00 반드시 크게 들을 것 Turn It Up To 11 93min / ㉔		705 19:30 내 머리 속의 지우개 A Moment to Remember 144min / ㉔			
MM Korea Manhwa Museum					706 14:00 인 더 더스트 Just a Breath Away 89min / ㉔			707 17:00 방화 Youth 135min / ㉔		708 20:00 뱀파이어 Lifeforce 116min / ㉔			
S02 CGV Sopoong 2				709 13:00 살인엠포지 Boar 96min / ㉔				710 17:00 오컬트 볼셰비즘 + 마스터클래스 Occult Bolshevism + Master Class 72min+Talk / ㉔			711 20:30 블루 마이 마인드 Blue My Mind 97min / ㉔		
S03 CGV Sopoong 3				712 13:00 심리의 숲 The Axiom 98min / ㉔			713 16: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73min / ㉔			714 19:30 GV 슬럼가 대승격 Buy Bust 128min / ㉔			
S04 CGV Sopoong 4				715 13:00 GV 라이브하드 Live Hard 100min / ㉔			716 16:00 다이내마이트 스퀘들 Dynamite Graffiti 138min / ㉔			717 19:00 살인 모기의 습격 Killer Mosquitos 85min / ㉔			
S05 CGV Sopoong 5			718 12:00 자봉 위의 모험 Look Up 90min / ㉔		719 14:30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99min / ㉔			720 17:00 인디스토리 단편 2 INDIESTORY Shorts 2 79min / ㉔			721 19:30 GV 거리의 래퍼 Respetto 96min / ㉔		
S06 CGV Sopoong 6					722 14: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72min / ㉔			723 17: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71min / ㉔			724 19:30 GV 슈퍼히어로 조쉬 Bhavesh Joshi Superhero 153min / ㉔		
BU3 CGV Bucheon 3			725 12:00 GV 밤의 문이 열린다 Ghost Walk 90min / ㉔				726 15:30 더 크리미널 마인드: 공공의 적 The Liquidator 124min / ㉔				727 20:00 GV 씨니를 찾아서 Sunny 110min / ㉔		
BU4 CGV Bucheon 4			728 12:30 1984년, 여름 Summer of '84 105min / ㉔			729 15:00 벼룩 잡는 사무라이 Flea-picking Samurai 110min / ㉔			730 18:00 보이즈 크라이 Boys Cry 96min / ㉔		731 20:00 디 엔드? The End? 98min / ㉔		
BU5 CGV Bucheon 5				732 13: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75min / ㉔			733 16:00 GV 고독한 늑대의 피 The Blood of Wolves 126min / ㉔				734 20:00 맨디 Mandy 121min / ㉔		
BU6 CGV Bucheon 6				735 13:30 GV 올레니아 Eullenia 127min / ㉔				736 17:00 리벤지 Revenge 108min / ㉔			737 19:30 GV 새드 뷰티 Sad Beauty 92min / ㉔		
BU7 CGV Bucheon 7			738 12:30 왼편 마지막 집 The Last House on the Left 84min / ㉔				739 15:30 새벽 3시 3AM Part3 101min / ㉔				740 19:30 GV 대관람차 The Goose Goes South 110min / ㉔		
SS Solan Art hall								741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73min / ㉔			742 20:00 자연의 반란 ZOOks 97min / ㉔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산다






J. ESTINA